

2016 간호계 주요 뉴스

윤종필 간호사 국회의원 당선



윤종필 전 국군간호사관학교장(전 대한간호협회 감사)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4월 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13명)로 공천을 받아 당선에 영예를 안았다.

윤종필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배정돼 활동하고 있으며, 여성가족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다.

이번 선거에 앞서 그동안 간호사 국회의원은 모두 6명이 배출된 바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윤종필 국회의원 당선 축하연을 6월 1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종필 국회의원은 “제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영예를 누릴 수 있

게 된 것은 모두 간호계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이라며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윤종필 의원이 국민 건강과 간호발전을 위한 정치를 활발히 펼칠 수 있도록 전국의 간호사들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 출마한 간호사 후보는 윤종필 당선자를 비롯해 비례대표 4명과 지역구 2명, 모두 6명이었다.

보건료계에서는 의사 3명(지역구), 치과의사 2명(지역구), 약사 4명(지역구 2명·비례대표 2명)이 당선됐다. 여성 의원은 역대 국회 최대 인원인 51명(지역구 26명·비례대표 25명)이 당선됐다.

대한민국 성장 밑거름 파독간호사 50주년



간호사들이 독일로 대규모 파견된 지 반세기를 맞아 대한민국 성장의 밑거름이 된 파독간호사들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한국과 독일에서 각각 열렸다.

파독간호사 50주년 기념행사 및 특별 전시회가 ‘파독간호사 50년, 그 위대한 여정’ 주제로 5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당시 신경림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했다.

기념행사에서는 ‘독일의 한국 간호사, 그들의 선택과 경험’ 등 주제강연, 뮤지컬 ‘독일이리랑’ 갈라쇼가 진행됐다.

특별전시회는 사진전과 박물관 전시로 꾸며졌다. 사진전은 △푸른 청춘, 가난한 조국 위해 떠남 △놀라움과 부러움 그리고 외로움 △대한민국 산업화의 초석이 된 △제2의 고향에 뿌리 내림 △한국여성 이주사(移住史)의 시작을 이끔 △독일과 한국에 문화의 다리를 놓음 등 6개 테마로 구성됐다. 파독간호사 등이 대한간호협회에 기증한 다양한 박물관도 선보였



다. 파독간호사 사진전과 함께 한국간호 113년을 한 눈에 보여주는 사진도 함께 전시됐다.

독일 예선에서 파독간호사 50주년 기념행사가 재독한인간호협회(회장·윤행자) 주최로 5월 21일 열렸다.

독일 전 지역에서 온 1000여명의 파독간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으며,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이 참석했다. 재외한인간호사회 모니카 권 회장을 비롯한 한인간호사들이 함께 자리했다.

기념행사에서는 파독간호사들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감사장이 수여됐다. 기념행사에 이어 파독간호사 50주년을 축하하는 문화행사가 열렸다.

환자안전법 시행 ... 국가환자안전시스템 출범

우리나라 최초로 제정된 ‘환자안전법’이 7월 29일부터 시행됐다. 환자안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법이며, 간호사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법이다.

환자안전법 제정안은 제19대 국회에서 신경림 의원과 오세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2014년 12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2015년 1월 28일자로 공포됐다. 이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마련됐으며, 환자안전법은 올해 7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환자안전법에 따르면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 의료인, 보건 의료기관장, 전담인력, 환자 및 보호자 등은 그 사실을 자율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자율보고에 대한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했다. 보고확실 시스템 운영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맡았다.

환자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국가환자안전위원회’가 설립

됐다. ‘환자안전기준’을 심의 확정했으며, ‘환자안전지표’가 개발될 예정이다.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환자안전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뒀아 하는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단,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전담인력의 자격은 간호사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보건료계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보건료계에 근무했거나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전담인력은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을 매년 12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단, 최초 시행하는 교육은 배치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24시간을 받아야 한다. 올해 두 차례 교육이 실시됐다.

우리나라 남자간호사 1만명 돌파

우리나라 남자간호사 수가 1만명을 넘어섰다.

올해 치러진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남자 1733명이 합격하면서 남자간호사 수는 총 1만542명이 됐다. 1962년 처음으로 남자간호사가 면허를 취득한 지 54년만의 일이다.

간호사는 여자의 직업이라는 편견을 깨며 의료현장의 풍속도를 바꿔나가고 있는 남자간호사들 이야기가 주말저녁 지상파 방송을 탔다.

KBS 1TV ‘다큐멘터리 3일’에서 ‘미스터 나이팅게일-대학병원 남자간호사 72시간’을 6월 19일 방영했다. 응급진료센터를 넘어 일반병동, 중환자실, 신생아집중치료실 등 다양한 파트에서 활약하고 있는 남자간호사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았다.

대한남자간호사회에 이어 국내 간호대학 남자 교수들로 구성된 ‘대한남자간호학교수협의회’가 2월 26일 발족했다.

한편 연도별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남자 수 및 전체 합격자 중 비율은 다

음과 같다. △2004년=121명(1.1%) △2005년=244명(2.1%) △2006년=219명(2.1%) △2007년=387명(3.2%) △2008년=449명(4.0%) △2009년=617명(5.3%) △2010년=642명(5.4%) △2011년=837명(6.7%) △2012년=959명(7.5%) △2013년=1019명(7.8%) △2014년=1241명(8.0%) △2015년=1366명(8.7%) △2016년=1733명(9.9%).

남자간호사 배출은 2005년부터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2009년 617명의 남자간호사가 탄생하며, 한 해 배출 인원 500명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2013년부터 남자간호사 연 배출 인원 1천명 시대가 열렸다.

연도별 남자간호사 수(누적인원)는 다음과 같다. △2004년=829명 △2005년=1073명 △2006년=1292명 △2007년=1679명 △2008년=2128명 △2009년=2745명 △2010년=3387명 △2011년=4224명 △2012년=5183명 △2013년=6202명 △2014년=7443명 △2015년=8809명 △2016년=1만542명.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 성공 개최 1주년

서울 세계간호사대회 성공 개최 1주년을 기념하면서, 대회 준비를 위해 출범했던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 조직위원회’ 해단식이 6월 23일 열렸다.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ICN Conference and CNR 2015 Seoul)는 ‘글로벌 시민, 글로벌 간호(Global Citizen, Global Nursing)’ 주제 아래 열렸다.

각국 간호협회 대표들이 참석한 대표자 회의(CNR) 및 세계 간호사들이 간호교육·연구·실무분야의 최신 동향과 정보를 교류한 학술대회가 진행됐다.

세계간호학생대회, 개발도상국 간호지도자와 학생들을 초청한 대한간호협회 국제협력 프로젝트, 대한간호협회 홍보관 및 한국 간호역사 사진전, 간호사 유니폼



및 한복 패션쇼, 제2회 재외한인간호사대회가 열렸다.

메르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치러진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는 한국 간호의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인 대회로 기록됐으며, 한국 간호역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전문대학 4년제 간호과 명칭 ‘간호학과’로

전문대학에서 수업연한 4년의 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전공 명칭이 기존 간호과에서 ‘간호학과’로 변경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2월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3월 2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은 당시 안홍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의 자구를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개설된 과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할 수 있다’에서 ‘전문대학에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고등교육법이 2011년 개정되면서 전문대학 간호과에서 4년 교육과정을 운영해 이수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게 됐다. 하지만 수업연한 4년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 명칭이 ‘간호과’로 돼 있어 3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받은 것으로 오인될 수 있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전문대학에서 양성하는 의료인의 경우에도 전공에 ‘학과’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간호교육 4년 일원화의 후속조치에 해당 하는 법률 개정이 모두 완료됐다.

의료인, 병원 내 명찰 착용 의무화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 실습을 하는 간호대학생 등은 의료기관 내에서 명찰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이 5월 19일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명찰 의무 착용 건은 당시 신경림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 실습을 하는 간호대학생 등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무적으로 명찰을 착용해야 한다.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의료인 등이 명찰을 달도록 의료기관의 장이 지시·감독하도록 했다.

중앙고시교육원의 오랜 전통 다양한 학습자료

1일 2회 **이메일 모의고사문제 제공** **무료**

무료 신청하기

전화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랜 전통의 간호·보건 전문교육원

- 국가고시 학원부분에서 대한민국 이머징경영인 대상수상
- 보건·간호분야에 도움이 되는 교육기관으로 소개
- Best of Best 합격수기
- 2006년부터 연속 E-Trust 인증
-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평생교육시설

합격수기

간호직 합격수기 5개월만에 합격했어요. 54675 회원님

안녕하세요~저는 경북 간호직 공무원에 합격한 여성입니다. 저는 올해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병원 발령을 기다리던 중에 간호직공무원시험을 준비하게 되어 수험기간은 5개월 정도로 짧은 편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려면 5개월 남짓의 시간이 남아있어 남들보다 더 열심히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개인시간을 배분할 수 있는 인터넷 강의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 전문 있고 간호직 강의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중앙고시교육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5과목 중에서 가장 취약한 과목은 국어였습니다. 국어도 암기과목 중의 하나였는데, 특히 문법, 한글 표기법 등의 부분들은 암기해야 풀 수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는 국어 강의가 참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상민 교수님께서서는 무조건 외우기보다는 이해를 시켜 주시고 암기하는 법도 알려 주셔서 기억에 오래 남았습니다. 영어는 제가 특히 어휘가 많이 취약해서 공부하면서도 모르는 단어들은 따로 단어장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쉬는 시간마다 보았고, 문법은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고 느껴 틀린 문법문제들은 따로 체크 해두고 시험에 임박했을때 한 번 더 훑어봤습니다. 한국사는 흐름을 잡고 매일매일 공부하였는데 전날 배운 걸 한번 읽고 공부하면서 흐름을 잡으려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전공과목은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형광펜으로 밑줄 그으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했습니다. 기본 이론서를 다 보고는 전공문제 풀면서 모르는 부분을 교육원에 계속 질문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날 전날부터는 이론에 한 번 더 기술문제를 계속 풀면서 오답을 따로 정리했고, 정리한 오답은 시험 전날까지 한 번 더 공부하고 갔습니다.

보건고시 합격수기 **지난 시험에 낙방후 합격했어요. 52532 회원님**

저는 지난번 시험에 낙방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였지만 계획적이지 못하고 상당히 열심히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나태해져 며칠씩 쉬기도하고 처음에는 너무 완벽하게 공부하려다보니 학습효율이 떨어졌고..... 시험에 실패..... 그 동안의 나태함을 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수험자료를 구하는데만 바빠 미처 보지 못했던 이제까지 받은 학습자료를 반복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2번째의 시험합격계획은 시험 2주 전까지 모든 시험준비를 끝내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 때 교육원의 핵심요약집이 많은 도움이 되었고, 틀림이 메모해 두었던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한 마무리 정리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합격하였습니다.

간호직공무원 **보건직공무원** **보건의료직** **보건교사**

개인별 맞춤영 학습진도표 제공 **합격비법**

중앙고시교육원의 합격시스템!

1. 전과목 이메일 모의고사 무료제공
2. 영어단어 이메일 모의고사 무료제공
3. 스마트폰(모바일) 강의 무료제공 *수강횟수 제한없이 무한반복 수강 가능
4. Mp3 강의 무료제공
5. 진단평가 모의고사 무료 제공
6. 기본서 문제집 무료 제공
7. 과목별 요약집 무료 제공
8. 기초영어 강의 및 교재 제공
9. 면접 교재 및 강의 제공
10. 시험관련 정보 SMS 발송

* 직렬에 따라 제공되는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간호·보건의 오랜 전통 **02) 979-8114**
중앙고시교육원 **080-030-0001**
 www.joonganggosi.co.kr